

18세기 외교사 세미나 발제문 > 2008. 12. 14(日)

연행사와 통신사, 후마 스스무, 서울; 신서원, 2008.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김현미, 서울; 혜안, 2007.

외교학과 박사과정 2005-30940 이택선

연행사와 통신사, 후마 스스무, 서울; 신서원, 2008.

제1부 16,7세기 연행사의 중국관찰

제1장 만력 2년 조선사절의 ‘중화’국 비판

필자는 16,7세기경의 조선 지식인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화이사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관찰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허봉과 조헌 두 사람의 일기를 살펴보고 있다. 예컨대 필자는 따르면 허봉의 경우 ‘중화’인이 되어, ‘중화’인을 공격하고, ‘중화’의 문화와 정치의 현상을 우려하는 것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허봉은 우면 특권의 존재가 커다란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있는 원인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으며, 중화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화이라는 개념, 화이의 구별 없는 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중화국으로부터 얻은 가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중화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만력 2년 4개월간 중국을 여행한 두 조선인은 거의 중화인 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조선이 ‘소중화’가 된 것은 ‘이적’인 만주족에 의하여 조선이 파괴되고, 명조를 멸망시킨 후부터 결코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만력 2년 경 중국을 방문한 허봉, 조헌 등이 이미 소중화인이었고 명조가 중화국에 어울리지 않게 되자 결국 현실에는 없는 중화국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¹⁾

제2장 조헌의 ‘동환봉사’에 나타난 중국보고

필자에 따르면 조헌의 중국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라기 보다는 그것에 가탁하여 조선의 현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 자신의 체험과 견문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한 측면도 많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조선의 현상을 비판하는 때에 중국을 완전한 유토피아로서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 16세기 말 조선 지식인은 1. 중국의 경서 그 자체와, 2. 현재 존재하는 현실 그대로의 중국이라는 두 가지 텍스트를 읽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텍스트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때 그들은 현실의 중국이라는 텍스트를 개편하여 읽으려고 하였다. 예컨대 조헌의 보고에서 발견되는 작위나 중국의 현실은 조헌 자신이 신봉하였던 주자와 경서라는 텍스트에

1) 그렇다면 중화라는 개념은 결국 문명의 개념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듯한데, 이후 독자적인 ‘소중화’의 모습을 추구한 한, 일의 모습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해석해 왔던 관점과 달리, 일본보다 훨씬 중화에 동화된, 중화제국 역시 각별한 이웃 국가로 생각했던 조선의 특수성은 좀더 상세히 관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2) 사실 이러한 경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중 일부는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나 완전 평등한 교육제도를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과리고등사범이나 에나(ENA)가 존재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를 완전한 유토피아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함은 아닐까? 그 외에 자신이 살았거나 공부했었던 국가의 제도나 현실을 의도적으로 유토피아로 제시하여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주입하였던 이상의 모습의 투영이므로 결코 실제로 보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제3장 민정중의 ‘연행일기’에 나타난 왕수재 문답에 대하여

필자는 ‘연행록’과 ‘조선왕조실록’의 중국정보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가 정보전달자에 의한 정보가 변용되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민정중의 경우를 통해 보여준다. 당시 민정중에 의해 수집된 정보 가운데 강희제 및 그 시대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뿐이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에 전해진 강희제상의 상식은 현재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식과 크게 동떨어지며 이는 반청복명의 희망에 관계되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민정중과 그 동행자들의 성향이나 당시 조선의 분위기와 부합된다는 것이다.³⁾

제2부 18,19세기 연행사와 통신사에 있어서 학술논의와 학술교류

제4장 조선 연행사 신재식의 ‘필담’에 보이는 한학, 송학 논의와 그 주변

필자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국제관계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각한다면 국제간의 문화적 질서라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제5장 조선통신사의 일본고학인식-조선연행사의 청조한학에 대한 파악을 시야에 넣어서-

필자에 따르면 통신사 연구는 연행사와 병행되어 연구된바가 거의 없었다. 필자에 따르면 진사이의 ‘동자문’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전달되고 일본고학이 지니는 반 주자학적 입장을 읽게 된 조선 지식인들과 통신사들은 이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한편 1748년의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고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청조의 학술정보를 모르는 채 일본에 갔던 1748년의 통신사는 위구심과 위기감을 느끼며 열심히 ‘고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외국에서의 학술수입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던 유통경로와 매우 다른 것이었으므로 굉장한 당혹감과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제6장 1764년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소라이학

1764년의 통신사는 1748년의 통신사들을 통해 일본의 유학계가 거의 반 주자학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을 떠날때 까지는 일본고학의 중심인 오구 소라이의 저작은 어느 것 하나 읽지 않고 있었다. 일본에 도착한 이들 중에 남옥, 성대중, 원종거 등은 소라이의 저작을 입수하는데 매우 열성적이었고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소라이집’을 숙독하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국 후 ‘소라이학’을 그릇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필자는 당시 양국의 학술관계가 크게 전환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1764년의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학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를 그대로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1. 그 학술이 자신들이 야만인의 땅으로 생각했었으며 유사 이래 한번도 그 학술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일본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며, 2. 스스로 소중화를 칭하면서 이적의 민족이 지배하는 청조 중국도 멸시하던 조선의 분위기는 중국의 학술문화 조차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학술문화의 우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제7장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서적-고학과의 교감학 저작과 고서적을 중심으로

일본고학이 주자학을 능가했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일본의 안 시하쿠의 허위정보 전달에 한국의 이봉환 역시 허세에서 나온 허위정보로 맞섰으며 일본의 큐이칸은

3) 이 역시 현재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대외정세의 경우를 분석할 때 연구자나 관찰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의도적, 비의도적인 selection bias가 발생하는 경우는 너무나 허다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 재구성되어 전달,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 정주에 심취한 이봉환이 귀를 막고 그 이상의 문답을 피했다고 해석하였다. 필자에 따르면 이는 주자학 일변도였던 조선의 학풍이 이러한 대응을 낳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조선이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는 과신과 함께, 당시 조선에 ‘서적 정보’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대응을 불러일으킨 근본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본에 대한 선입관과 중화의식이 오류를 이끌었던 것으로 당시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존심이 동아시아3국의 학술을 각각 크게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 점이 과장과 허위를 자아내었으며 오해를 낳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제3부 연행록과 사조선록

제8장 일본현존 조선연행록 해제

필자에 따르면 연행사는 조선외교사에서 극히 특이한 존재로 연행록 역시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선배가 쓴 연행록을 재이용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국사, 동아시아사 전체연구에 귀중한 역사자료인 연행록에 대해서는 기초적 연구라고 할만한 것이 현재까지 없으며 심지어 잘못된 서지정보만이 가득하여 연구자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록 임기중과 임기중, 후마 스스무가 펴낸 연행록 전집들이 출간되어 연행사 연구 및 연행록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들 전집들은 해제를 첨부하고 있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이에 필자는 해제가 붙어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해제를 시도한다. 이들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자료들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흥군공우록 1권- 이 자료에서는 석성의 평화론 주장이 조선을 버린 것이 아니라 3년의 기간 동안 조선 스스로 군비를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 드러나는 등 중국정치사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11. 연행일기 1권- 여기에서는 문천상의 묘인 문산묘 수복계획을 청인에게 제안한 오재소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악비의 후손인 악종기에게 청조에 대한 반란계획을 건의하던 증정의 의식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29. 북유일기1권- 19세기 후반 한국의 대표적인 개화사상가의 한 사람이라는 강위의 일기.
31. 계사일록1권- 총리대신 등을 역임하면서 대일,대구미 제국 외교를 진행시켰던 이유원의 일기.

제9장 사유구록과 사조선록

필자는 기존의 연구는 유구사를 동아시아세계 전체 속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약했으며, 사유구록을 보다 객체화 시키기 위해 비교의 대상으로 사조선록을 삼고자 한다고 기술한다. 사유구록의 경우 사조선록에 비하여 저자 스스로 출판하거나 궁중에 바쳐 출판한 빈도가 매우 높았다.

예컨대 사유구록의 경우 작자 대부분이 명확한 저작목적 가지고 있는데 이는 1. 지침이 될만한 참고 서적이 없어 곤란하여 나중에 사자로 갈 사람의 참고서로 써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 2. 당시의 지식인들이 지닌 유구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오류에 가득 차 있어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명대의 사유구록이 실용을 중히 여기고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지체없이 바로 전하려고 지어진데 반해, 청대의 것은 실용성이 줄고 연구색이 강해지고 있었는데 특히 일부의 경우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문화인류학적 관심마저 읽어낼 수 있다고 필자는 지적한다.

이에 반해 조선의 경우는 ‘사이’가운데 정신상,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유구 행이 일중

의 징벌에 가까운 죽음의 여행인데 반해, 조선행의 경우는 큰 벌이도 되는 안전한 출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유기록에 비해 사조선록등의 기록이 매우 빈약한 것은 조선에 대한 정신적인 거리감이 너무나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역자후기: 역자들에 따르면 필자는 연행사와 통신사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시각을 학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즉,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 오키나와와 베트남까지 아울러 동아시아 세계의 학술과 문화 교류사를 생생하게 구성해냈다는 것이다.⁴⁾ 나아가 조선 통신사들은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학문을 전수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의연하게 주자학에 매달리던 조선 유학자들에 비해 ‘일본고학’으로 주자학을 상대화 시키는 단계에 진입하였던 일본 학자들에게 그 고루함을 지적당하였다는 것이다.⁵⁾ 즉, 조선의 학문이 주자학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조선의 학문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 손으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과 조선이 주자학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김현미, 서울; 혜안, 2007.

I. 18세기 연행록을 보는 시각의 확립

이 책의 목표는 ‘여행자 문학’으로서의 연행록이 18세기 문학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II. 18세기 연행의 역사적 흐름과 연행록 전개

청의 개국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670년대에는 조선이 청에 대하여 전개하는 외교 기술과 정책이 진일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삼계의 난에 호의적인 대마도의 입장을 청에 전달하여 대마도의 침공 시 청군의 지원을 확답 받고 청의 환심을 산 것이 그것이다. 한편 영조 시기에는 ‘난두문제’ 등 사행 중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동시에, 조, 청간 교류의 큰 문제점이나 특기할만한 공동의 골칫거리가 없던 평화시대가 한동안 지속되어졌는데 이에 따라 속국 예의 상징으로 대접하는 가마를 정지하고 번거로운 형식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결국 18세기 조, 청 교빙에서는 17세기와 비교하여 볼 때 ‘파병’이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내정간섭’ 등 수행해야 하는 외교적 임무 그 자체보다는 사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로 초점이 옮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초반 연행록의 작가들은 사행 당시 중심임무를 맡았던 서인, 노론계열의 ‘삼사신’ 이거나 부자, 형제, 사승 관계 등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말물이꾼과 역관의 경험을 빌어 이들의 대리경험과 대리견문을 통해 당시의 문물을 충실하게 전달해주기도 했다.

III. 청 문물에 대한 관심의 시기별 추이

한편 필자는 허봉의 ‘조천기’의 경우 당대 사상가의 입장과 문학적인 표현으로 인해 그 문학적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이러한 시도가 말미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술한 다른 연구들, <명청 중국의 대 조선외교에 있어서 ‘예’와 ‘문죄’>나 <명청 중국에 의한 조선 외교의 거울로서의 대 베트남 외교-책봉문제와 ‘문죄의 사’를 중심으로> 등이 기대되는 논문이다.

5) 사실 필자의 지적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조선 통신사를 바라보았던 기존 연구에 익숙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연구였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를 자세히 보면 한국 측의 반발을 고려한 듯 역자후기의 지적보다 오히려 매우 완곡하게 객관적인 부분을 지적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반드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역자의 지적처럼 필자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한거 같다.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행 일기라고 평가한다. 또한 18세기 초반의 연행록 안에서 주목하는 문물들은 전 시기의 이념의 상관물로부터 그 관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평가한다. 담헌의 경우 그 초점이 도시와 구조에 대해 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담헌의 시계에 대한 관심은 혼천의와 같은 세계의 ‘공간적 구조’를 탐구하는 동시에 ‘시간’이라는 하나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중기의 연행록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심대상 중 특화할만한 것은 ‘사람’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 1. 청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짝되고 있으며, 2. 자신이 전통적으로 가지려고 주입했던 선입견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음⁶⁾을 지적한다. 한편 연암의 경우 움직이는 문물로서 ‘수레’에 주목하고 있으며, ‘재생된 현실’, ‘재생된 역사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 평가: 필자는 서두에서 ‘자생적 근대’라고 까지 할 수 있는 18세기 정신사와 문학적 성과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한다. 나아가 ‘외교기록’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본격적인 문학연구가 미루어져 왔던 연행록들에 대해 비교문학의 차원에서 ‘여행자문학론’으로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다고 지적한다. 필자의 이러한 의도들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꼼꼼하지 못한 리딩 탓인지 필자의 기술 안에 담겨져 있는 18세기 정신사 속에서 ‘자생적 근대’의 증거나 흔적은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이 책의 정보나 광고의 경우 ‘자생적 근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책 안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자생적 근대’의 모습에 대해서는 필자나 출판사 모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 평가로는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 하지도,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지도 못한 그냥 평이한 수준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꼼꼼하게 읽거나 열정을 가지고 읽지는 못한 책이었다.

6) 이렇게 볼 때, 허봉과 조현의 경우를 통해 기록자의 일종의 selection bia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후마스 스무의 견해는 특정시기의 것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특정시기의 경향을 전체시기의 경향인 것인 양 일반화하는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후마스 스무의 몇 가지 지적에는 주목할만하지만 전체시기, 다른 연행록 기록자들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신중히 검토해보아야만 할 것이다.